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 비교

방 경 숙* · 전 경 자**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생의 초기인 영유아기가 중요한 이유는 건강과 발달의 기초가 형성되는 시기일 뿐 아니라 이후 일생동안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하나로 영아기 기질이 제시되고 있는데(Bates, Olson, Pettit, & Bayles, 1982), 원만한 모아관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영아의 기질을 이해하고 적절한 상호작용을 유도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이러한 노력에 따라 기질 자체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다(방경숙, 2000; Parker, Zahr, Cole, & Brecht, 1992). 영아기 기질을 연구한 Seifer, Schiller, Sameroff, Resnick, & Riordan(1996)은 영아기 기질이 어머니의 민감성 및 안전한 애착 형성과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하였으며, Meyerhoff(1995)도 영아기 기질은 부모의 반응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서, 부모가 된 초기에 영아의 기질을 파악하도록

하고 민감하고 적절하게 반응을 주도록 교육하는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기질 유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기질’이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이나 영아의 정서적 반응(Coffman, Levitt, Guacci, & Silver, 1992; Houldin, 1987), 또는 반응성과 자기조절에서의 개인적 차이(Rothbart, Ahadi, & Evans, 2000)로 정의되는데, 영아의 기질은 주로 어머니의 보고에 의해 사정되므로 어머니의 지각이 반영되어 있다. 영아기의 기질이 이후 청소년기의 정신적 증상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연구한 결과 생후 6개월의 기질에서 보채고 요구적인 기질을 보였던 영아는 청소년기에 정신적 증상을 더 많이 나타냈다(Teerikangas, Aronen, Martin, & Huttunen, 1998).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기질의 중요성에 비해 국내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볼 수 있으며, 아동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는 기질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김중훈, 1997).

한편 저체중출생아는 신호가 명확하지 못하고 다루기가 어려워 저체중출생아 어머니들은 정상체

* 이주대학교 간호학부

** 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

중출생아 어머니보다 모아상호작용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경험한다(권미경, 1987; 조결자, 1993).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기질에 대한 직접적인 비교연구는 없었지만, 어머니가 아기의 기질이 다루기 어려운 기질이라고 지각할 경우 부모로서의 효능감이 감소되고 산후우울이 늘었다는 보고들이 있어(Cutrona & Troutman, 1986; Gross, Conrad, Fogg, & Wothke, 1994), 저체중출생아에 대한 기질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게 된다. Pridham(1994)의 연구에서도 어머니 자신의 부모 역할에 대한 평가와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 기질의 상관성을 보았는데, 영아기질 중 특히 온순성과 밀착성 등이 어머니로서의 평가와 유의한 상관성이 있었으며 국내 연구로는 정상체중출생아를 대상으로 한 방경숙(2001)의 연구에서 영아기질과 영아돌보기 자신감 사이에 정상관계를 보였고 온순·지속성과 반응성이 어머니의 돌보기 자신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저체중출생아는 정상체중출생아에 비해 주의력결핍과 과다행동(ADHD) 등의 행동문제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저체중출생아를 대상으로 주의력결핍과 과다행동을 보이는 아이와 보이지 않는 아이의 신생아기의 특성을 비교한 결과 신체적 건강상태는 두 군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연구자들은 저체중출생아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 신체적 결함보다는 사회성 발달의 결함에 있다고 제시하였다(O'callaghan & Harvey, 1997). 이러한 사회성 발달의 결함 문제는 학령기까지도 지속되므로 영아기 초기의 긍정적인 기질 형성을 도움으로서 그 이후의 문제행동을 예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여러 연구에서 영아기의 기질은 환경에 의한 변화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저체중출생아 어머니들이 아기의 기질을 잘 파악하고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을 통해 긍정적인 기질 형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돌보는 것이야말로 이

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중요한 간호가 될 것이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신생아의 모아상호작용 양상 비교에 대한 연구는 일부 있으나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에 대한 비교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Thomas와 Chess(1977)나 최영희(1990)는 기질의 선천적, 유전적 요인을 강조하였지만 환경에 의한 기질의 변화 가능성도 일부 암시하고 있는데, Thomas와 Chess(1977)의 적합성 모델에 따르면, 환경의 속성, 기회, 기대, 요구가 아동의 능력, 동기, 행동유형 등의 특성과 조화될 때 긍정적인 방향으로의 발달이 가능하다고 하여 역시 모아관계의 형성에 있어 기질에 대한 이해가 중요함을 피력하였다. 기질에 대한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 연구자들을 살펴보면, 기질은 아동과 사회적 환경간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으며(Bates, 1980), 생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나고 생물학적 요소에 의해 강한 영향을 받지만 발달이 진행될수록 경험의 영향이 점점 커진다고 하였다(Goldsmith, et al., 1987, 김종훈, 1997에서 재인용). 환경자와 방경숙(2000)의 연구에서도 영아기질과 모아상호작용, 영아발달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기질은 영아발달에 중요한 요소로 제시되고 있으며 모아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데 저체중출생아는 정상신생아보다 모아상호작용 형성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두 군간의 영아초기 기질에 차이가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을 비교하고, 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 특성을 파악함으로써 영아의 특성을 이해하고 발달증진을 위한 간호중재를 개발하며 부모교육을 계획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모아상호작용 및 성장발달 증진을 위하여 영아기 기질 특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상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과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을 비교한다.

둘째, 대상자의 부모 특성 및 영아 특성에 따라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을 각각 분석한다.

셋째, 영아기 기질 하위척도별 상관관계를 분석한다.

3. 용어 정의

1) 영아 기질

'기질'이란 생의 초기부터 나타나는 개인적 성향(Coffman, et al., 1992)을 말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Pridham, Chang과 Chiu(1994)가 개발한 "What my baby is like"를 방경숙(2001)이 번안한 도구로 각 영아의 어머니가 측정한 점수를 말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기질임을 의미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을 비교하고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비교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및 자료수집 과정

1999년 3월부터 2001년 1월까지 서울과 천안,

아산지역에서 생후 12개월 이하의 정상체중출생아 어머니 70명과 저체중출생아 어머니 62명, 총 132명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연구목적을 설명들은 후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하는 어머니로서 아기에게 선천성 이상 등의 특별한 질환이 없는 경우로 제한하였으며, 정상체중출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m 이상, 저체중출생아는 출생 시 체중이 2,500gm 미만인 경우로 하였다.

3. 연구도구

1) 일반적 특성

어머니의 나이, 직업, 교육정도, 가족형태, 분만형태, 그리고 영아의 월령, 성별, 출생순위, 수유방법, 입원경험 유무 등에 따라 영아기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보기 위해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자료는 연구자가 개발한 일반적 특성에 관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2) 영아 기질

영아 기질은 Pridham, Chang과 Chiu (1994)가 개발한 What My Baby Is Like(WBL)를 방경숙(2001)이 번역하고 요인분석을 통해 18문항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9점 척도로 되어있으며 온순성 및 지속성, 활동성, 반응성, 적응성의 네가지 영역을 측정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온순하고 지속적이며 활동적이고 반응과 적응을 잘하는 긍정적인 기질을 가진 아기임을 의미한다. 방경숙(2001)의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4.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비교는 χ^2 -test와 t-test로 검증하였고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비교는 공변량분석(ANCOVA)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는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기질의 하부영역별 상관성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정상체중출생아군 70명과 저체중출생아군 62명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정상체중출생아군 부모의 학력과 월수입이 저체중출생아군 부모의 학력과 월수입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분만형태에 있어서는 저체중출생아 어머니가 정상체중출생아 어머니보다 제왕절개가 유의하게 많았다<표 1>.

2.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비교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질을 비교하기 위해 ANCOVA를 이용하여 두 군간의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어머니와 아버지의 학력, 가족 월수입, 분만형태를 공변량으로 처리하고 기질을 비교한 결과,

III. 연구결과

1. 연구대상자와 영아의 일반적 특성

<표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정상체중출생아군 실수(%) (n=70)	저체중출생아군 실수(%) (n=62)	χ^2 또는 t	p
어머니 연령	평균±표준편차	28.57±2.31	29.69±4.28	t=-1.840	.069
아버지 연령	평균±표준편차	31.44±2.81	32.56±4.35	t=-1.712	.090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2(31.4)	54(88.5)	$\chi^2=43.625$.000
	대졸이상	48(68.6)	7(11.5)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9(27.1)	50(83.3)	$\chi^2=40.958$.000
	대졸이상	51(72.9)	10(16.7)		
어머니 직업	유	19(27.1)	9(14.5)	$\chi^2=3.137$.077
	무	51(72.9)	53(85.5)		
가족형태	핵가족	14(73.7)	15(83.3)	$\chi^2=.508$.476
	확대가족	5(26.3)	3(16.7)		
가족 월수입	평균±표준편차(단위; 만원)	183.43±68.58	148.39±83.08	t=2.653	.009
분만형태	자연분만	46(65.7)	24(38.7)	$\chi^2=9.626$.002
	제왕절개	24(34.3)	38(61.3)		
영아의 성별	남	35(50.0)	31(50.0)	$\chi^2=.000$	1.000
	여	35(50.0)	31(50.0)		
영아의 월령	평균±표준편차	5.31±4.09	5.10±3.36	t=.335	.738

〈표 2〉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차이

영역	정상체중출생아(n=70)	저체중출생아(n=62)	F	p
온순·지속성	47.13± 9.09	42.37± 9.80	4.944	.028
활동성	26.87± 7.18	23.98± 7.12	9.072	.003
반응성	27.93± 5.70	23.76± 6.00	11.950	.001
적응성	18.40± 5.16	18.03± 4.83	.406	.525
기질총점	120.33±19.63	108.23±19.59	8.954	.003

저체중출생아의 기질점수는 정상체중출생아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3). 하부 영역별로는 ‘온순·지속성’, ‘활동성’, ‘반응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적응성’만이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2>.

구체적으로 각 문항별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특성을 비교한 결과, 저체중출생아는 정상체중출생아에 비해 ‘온순·지속성’이 저

하되어 있어 달래기도 더 힘들고 집중시간이 짧으며 ‘활동성’이 낮아 목욕을 시키거나 기저귀를 갈 때 활발한 움직임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 사이에 많은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반응성’으로 네가지 문항 모두에서 저체중출생아는 정상체중출생아보다 반응성 점수가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문항별 기질 비교

영역	문항	정상체중아 (n=70)	저체중아 (n=62)	t	p
온순성 및 지속성	나의 아기는 수유시간이 규칙적이다.	6.31±2.34	5.71±2.32	1.488	.139
	나의 아기는 자는 시간이 규칙적이다.	6.03±2.32	5.89±2.07	.367	.714
	나의 아기는 먹거나 자는 것 이외의 어떤 것을 할 때 오랫동안 집중하는 편이다.	6.21±1.52	5.63±2.17	1.807	.073
	나의 아기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그것을 향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바라보는 편이다.	6.96±1.56	5.76±2.41	3.430	.001
	나의 아기는 하루중 대부분의 시간동안 즐겁고 만족스러워 한다.	6.73±1.90	6.05±2.35	1.836	.069
	나의 아기는 울 때 안아주거나 달래주면 쉽게 울음을 그친다.	7.51±1.95	6.53±2.63	2.453	.015
	나의 아기는 달래기가 어렵다.(*)	7.37±1.70	6.81±2.02	1.749	.083
활동성	나의 아기는 목욕시킬 때 활발히 움직인다.	7.11±2.28	5.89±2.59	2.896	.004
	나의 아기는 수유할 때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6.49±2.49	5.98±2.32	1.194	.234
	나의 아기는 기저귀를 갈 때 활발히 움직인다.	7.34±2.21	6.56±2.31	1.979	.050
	나의 아기는 자는 동안에 몸을 활발히 움직인다.	5.93±2.49	5.55±2.33	.903	.368
반응성	나의 아기는 안아줄 때 얼굴을 내 가슴이나 어깨에 파묻으면서 안긴다.	6.51±2.34	5.48±2.64	2.377	.019
	나의 아기는 깨어있을 때 소리나 주위환경 등에 민감하다	6.84±2.14	5.98±2.24	2.255	.026
	나의 아기는 자신의 감정을 크고 강하게 표현한다.	7.60±1.68	6.55±2.19	3.118	.002
	나의 아기는 새로운 것을 잘 받아들인다.	6.97±1.69	5.74±2.12	3.701	.000
적응성	나의 아기는 수유시간이나 종류를 변경했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6.31±2.20	6.25±2.14	.180	.858
	나의 아기는 수면시간이나 환경을 변경했을 때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6.09±2.15	5.90±2.32	.468	.640
	나의 아기는 일반적으로 변화에 쉽게 익숙해진다.	6.00±2.17	5.85±2.16	.384	.702

(*)도치문항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정상체중출생아 70명과 저체중출생아 62명을 나누어 각각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 점수를 비교한 결과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 모두 부모의 연령, 학력, 어머니 직업유무, 분만형태, 가족형태, 월수입, 영아의 성별에 따른 기질점수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영아의 월령(6개월 기준)에 따라서는 저체중출생아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4>.

4. 전체 대상자의 기질 영역간의 상관성

전체 대상자의 기질 영역간의 상관성을 본 결과 온순·지속성은 활동성 및 반응성, 적응성과 모두 유의한 정상관관계가 있었으며 활동성과 반응성간에도 유의한 정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반응성과 적응성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표 5>.

<표 4>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구분	정상체중출생아(n=70)				저체중출생아(n=62)			
		n	M±SD	t	p	n	M±SD	t	p
어머니 연령	30세이하	58	120.40±19.94	.063	.950	37	107.97±21.47	-1.26	.900
	31세이상	12	120.00±18.90			24	108.63±16.71		
아버지 연령	31세이하	44	117.39±20.54	-1.651	.103	32	108.59±21.30	.046	.963
	32세이상	26	125.31±17.23			28	109.59±19.08		
어머니 학력	고졸이하	22	117.14±18.26	-.920	.361	53	108.25±19.90	.392	.697
	대졸이상	48	121.79±20.25			7	105.14±17.94		
아버지 학력	고졸이하	19	122.84±19.10	.651	.517	49	107.67±20.27	-.397	.693
	대졸이상	51	119.39±19.93			10	110.40±16.93		
어머니 직업	유	19	119.89±21.07	.112	.911	9	106.11±25.15	.349	.728
	무	51	120.49±19.28			52	108.60±18.74		
가족형태	핵가족	58	121.74±18.39	1.331	.188	44	107.86±19.31	-.233	.817
	확대가족	12	113.50±24.56			17	109.18±20.85		
분만형태	자연분만	46	119.28±19.83	-.614	.541	24	104.46±24.53	-1.107	.276
	제왕절개	24	122.33±19.51			37	110.68±15.47		
가족 월수입	150만원이하	24	123.29±18.15	.911	.366	38	107.63±22.48	-.340	.735
	151만원이상	46	118.78±20.38			23	109.22±13.96		
아기 성별	남	35	121.97±20.89	.698	.488	30	107.90±17.91	-.128	.898
	여	35	118.69±18.44			31	108.55±21.38		
아기 월령	6개월이하	54	118.06±19.85	-1.809	.075	41	104.05±19.10	-2.488	.016
	6-12개월	16	128.00±17.28			20	116.80±18.12		

무응답 제외

〈표 5〉 전체대상자의 기질 영역간의 상관성 (N=132)

	온순·지속성	활동성	반응성
활동성	.358**		
반응성	.607**	.501**	
적응성	.129	-.013	-.057

IV. 논 의

저체중출생아는 정상체중으로 출생하는 아기들에 비해 신체적 건강문제를 많이 가질 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나 상태를 표현하는 능력, 그리고 반응능력이 떨어져 일반적으로 돌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저체중출생아의 모아상호작용 양상이 정상체중출생아와는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연구는 일부 이루어졌으나 모아상호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파악되고 있는 영아기질이 두 그룹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찾아보기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 저체중출생아의 기질은 정상체중출생아의 기질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는데, Halpern, Brand와 Malone(2001)의 연구에서는 극소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9개월 시의 기질과 문제 행동을 비교한 결과 극소저체중출생아가 정상체중출생아보다 더 많은 문제행동을 나타내긴 했으나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의 기질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다른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대상아들은 평균 월령이 약 5개월로 Halpern 등의 연구 대상아보다 월령이 낮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월령에 따른 두 군간의 변화 양상과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들이 앞으로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기질 영역별로 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온순·지속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저체중출생아는 잘 보채며 많이 우는 경향이 있다고

한 Davis와 Thoman(1987)의 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며, McCain(1990)의 연구에서 저체중출생아는 발달 미숙으로 인해 자신의 원하는 바를 표현하는 신호의 명확성이 부족하다고 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저체중출생아는 자신이 원하는 바를 잘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어머니가 파악하기 어려워 아기를 달래는 것도 어렵게 느끼므로 온순성에서의 점수가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어머니를 비롯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자극에 반응하는 반응성도 저체중출생아에서 유의하게 낮았는데, 이는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모아상호작용 양상을 비교한 조결자(1993)의 연구에서 저체중출생아는 정상출생신생아보다 어머니에 대한 반응 능력이 유의하게 낮았다는 연구 결과를 지지하는 것이다. 반응성이 낮은 아기는 어머니의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유발을 덜하게 되므로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이애란과 박문희, 1997). 저체중출생아는 활발한 움직임도 정상체중출생아에 비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저체중출생아 또는 미숙아는 정상신생아에 비해 영아기에 발성이 적고 덜 논다고 한 Leonard 등(1992)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 변화에 대한 적응성은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는데 다른 영역에 비해 적응력은 운동신경계의 미숙함으로 인한 영향을 덜 받는 부분이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와 같이 저체중출생아 어머니는 정상체중출생아 어머니에 비해 자신의 아기의 기질을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머니가 자신의 아기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 더 민감한 상호작용을 나타내지만 부정적으로 지각하는 경우에는 모아상호작용도 적게 일어난다고 보고되고 있다(김태임, 1990; 김신정과 정금희, 1995). May(1997)는 아기 돌보기에 자신이 있는 저체중

출생아의 어머니는 자신의 아기를 덜 까다로운 기질로 지각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저체중출생아의 상호작용을 증진시키고 정상적인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아기의 기질에 대해 어머니가 어떻게 지각하는가 파악하고 아기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통해 어머니의 자신감을 증진시키며 또한 바람직한 상호작용을 통해 아기의 기질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간호중재가 제공되어야 하겠다.

비록 본 연구에서 저체중출생아 부모의 학력 및 월수입이 정상체중출생아보다 유의하게 낮아 어머니가 지각하는 영아기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우나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를 구분하여 일반적 특성에 따른 영아기질을 비교한 결과 부모의 학력이나 월수입이 영아기질 점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으므로, 그러한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라기 보다는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특성 차이로 보아야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이강호(199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유아의 기질에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월령이 높은 아기는 월령이 낮은 아기보다 기질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영아기동안은 기질이 변화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 타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이다(Lemery, Goldsmith, Klinnert, & Mrazek, 1999). 특히 저체중출생아에서 월령이 6개월 이상된 후기 영아는 6개월 미만의 전기 영아보다 '활동성'과 '반응성' 점수가 더 높았는데, 이는 저체중출생아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운동신경계가 더 성숙해 지면서 나타난 자연스러운 결과로 파악할 수 있겠다. 정상체중출생아의 경우에는 월령에 따라 활동성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반응성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차후 같은 월령에서는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간에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진다면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기질을 이해하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저체중출생아 어머니는 정상체중출생아 어머니보다 영아기에 있는 자신의 아기의 기질에 대해 '온순·지속성', '활동성', '반응성'이 낮은 것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정상체중출생아와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특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본다. 이러한 기질 특성의 차이에 대한 본 연구 자료는 기질에 적합한 모아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저체중출생아 어머니 부모교육 자료를 개발하는데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모아상호작용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아기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V.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연구는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영아기 기질을 비교하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저체중출생아의 기질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Pridham 등(1994)의 기질 도구인 'What my baby is like' 도구를 번안하여 기질을 측정하였으며 연구 대상자는 저체중출생아 어머니 62명, 정상체중출생아 어머니 70명이었다.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은 다음과 같다.

- 1)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질은 정상체중출생아의 영아기질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영역별로는 온순·지속성, 활동성, 반응성에서

저체중출생아의 기질 점수가 정상체중출생아의 기질점수보다 유의하게 낮았다. 적응성에서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기질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두 군 모두 부모의 학력, 경제상태, 직업유무, 분만형태, 출생순위 등에 따른 기질은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저체중출생아의 경우에만 영아의 월령이 6개월 이상인 경우 6개월 미만에 비해 기질 점수가 유의하게 높았다.
- 3) 기질 영역간의 상관관계에서는 온순·지속성과 활동성, 반응성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적응성은 온순·지속성과만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저체중출생아의 영아기질은 정상체중출생아의 영아기질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낮았으며, 온순·지속성, 활동성, 반응성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저체중출생아의 모아상호작용과 성장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기질 특성을 이해하고 기질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교육이 필요하겠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 1) 저체중출생아 기질의 시간경과에 따른 변화양상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2) 저체중출생아의 기질과 모아상호작용 및 발달상태와의 관련성을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 3)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체중출생아의 영아기 이후 기질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 권미경 (1987). 미숙아와 만삭아 어머니의 모아상호작용과 모성정체감 인지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신정, 정금희 (1995). 산욕 초기 정상 신생아와 고위험 신생아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 차이에 관한 연구. 아동간호학회지, 1(1), 5-15.
- 김중훈 (1997). 임상적 측면에서 본 기질이론. 윤인정신의학보, 4(1), 21-37.
- 김태임 (1991). 초산모의 영아에 대한 지각 및 양육태도와 초기 수유 상황에서의 모아상호작용 양상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방경숙 (2000). 영아기 어머니역할 교육 프로그램이 모아상호작용과 영아발달에 미치는 효과.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방경숙 (2001). 영아기질 측정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 평가. 부모자녀건강학회지, 4(2), 32-42.
- 이강호 (1998). 부모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수유방식이 아동의 기질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에란, 박문희 (1997). 초기 모유수유와 인공수유에 따른 초산모의 신생아에 대한 지각 비교. 아동간호학회지, 3(2), 178-189.
- 조결자 (1993). 저체중출생아와 정상아의 모아상호작용 변화양상.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최영희 (1990). 아동의 기질이 모-자 상호작용과 아동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한경자, 방경숙 (2000). 영아 기질과 모아상호작용, 양육환경과의 관계. 아동간호학회지, 6(2), 132-143.
- 홍성도 (1997). 기질과 가정환경 및 발달사이의 관

- 계에 관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8(1), 50-56.
- Bates, J. E. (1980). The concept of difficult temperament. Merrill-Palmer Quarterly, 26, 299-319.
- Bates, J. E., Olson, S. L., Pettit, G. S., & Bayles, K. (1982). Dimensions of Individuality in the Mother-Infant Relationship at Six Months of Age. Child Development, 53, 446-461.
- Coffman, S., Levitt, M. J., Guacci, N., & Silver, M. (1992). Temperament and interactive effects: Mothers and infants in a teaching situation. Issues in Comprehensive Pediatric Nursing, 15, 169-182.
- Cutrona, C. E., & Troutman, B. R. (1986). Social support, infant temperament, and parenting self-efficacy. A mediational model of post-partum depression. Child Development, 57, 1507-1518.
- Davis, D. H. & Thoman, E. B. (1987). Behavioral states of premature infants: Implications for neural and behavioral development. Developmental Psychobiology, 20(1), 25-38.
- Gross, D., Conrad, B., Fogg, L., & Wothke, W. (1994). A longitudinal Model of maternal self-efficacy, depression, and difficult temperament during toddlerhood.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207-215.
- Halpern, L. F., Brand, K. L., & Malone, A. F. (2001). Parenting stress in mothers of very-low-birth-weight and full-term infants: A function of infant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child-rearing attitudes. Journal of Pediatric Psychology, 26(2), 93-104.
- Houldin, A. D. (1987). Infant temperament and the quality of the childrearing environment. Maternal-Child Nursing Journal, 131-143.
- Lemery, K. s., Goldsmith, H. H., Klinnert, M. D., & Mrazek, D. (1999). Developmental models of infant and childhood temperament. Dev Psychol, 35(1), 189-204.
- May, K. M. (1997). Searching for normalcy: Mother's caregiving for low birth weight infants. Pediatric Nursing, 23(1), 17-20.
- McCain, G. C. (1990). Parenting growing preterm infants. Pediatric Nursing, 16(5), 467-470.
- Medoff-Cooper, B. (1995). Infant temperament: Implications for parenting from birth through 1 year. Journal of Pediatric Nursing, 10(3), 141-145.
- Meyerhoff, M. K. (1995). Infant temperament- Perspectives on parenting-. Pediatrics for parents, 16(8), 8-9.
- O'callaghan, M. J. & Harvey, J. M. (1997). Biological predictors and co-morbidity of attention deficit and hyperactivity disorder in extremely low birth weight infants at school.
- Parker, S. J., Zahr, L. K., Cole, J. G., & Brecht, M. (1992). Outcome after developmental intervention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 for mothers of preterm infants with low socioeconomic status. Journal of Pediatrics, 120, 780-785.
- Pridham, K. F., Chang, A. S., & Chiu, Y. (1994). Mothers' Parenting Self-Appraisals: The Contribution of Perceived Infant Temperament. Research in Nursing & Health, 17, 381-392.
- Rothbart, M. K. (1981). Measurement of

-
- temperament in infancy. Child Development, 52, 569-578.
- Rothbart, M. K., Ahadi, S. A., Evans, D. E. (2000). Temperament and personality: Origins and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1), 122-135.
- Seifer, R., Schiller, M., Sameroff, A. J., Resnick, S., & Riordan, K. (1996). Attachment, maternal sensitivity, and infant temperament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Developmental Psychology, 32(1), 12-25.
- Teerikangas, O. M., Aronen, E. T., Martin, R. P., & Huttunen, M. O. (1998). Effects of infant temperament and early intervention on the psychiatric symptoms of adolescent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7(10), 1070-1076.
- Thomas, A., & Chess, S. (1977). Temperament and Development. NY: Brunner/Mazel Publishers.

ABSTRACT

Key Words : Infant temperament, Low-birth-weight

Comparison of Temperament in Infancy between the normal Infants and Low-birth-weight

Bang, Kyung Sook* · June, Kyung Ja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the temperamental differences between the normal infants and low-birth-weight infa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70 mothers with normal infants and 62 mothers with the low-birth-weight. Convenient sampling was done at three regions. The infant temperament scale developed by Pridham & others (1994) was used. Data were analyzed by SPSS WIN program.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temperament score between the low-birth-weight infants and normal infants. The scores of the low-birth-weight infa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normal infants in the subscales of amenability and persistence, activity, and reactivity. In adaptability,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wo groups.
- 2) In both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y socio-economic status of parents, delivery type, and birth order. But, in the case of low-birth-weight infants, the temperament score of infants over 6 month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infants under 6 months.

- 3) In the correlation analysis among subscales of the temperament, amenability and persistence, activity, and reactivity showed the significant relationship. But adaptability showed significant correlation only with the amenability and persistence.

In conclusion, temperament score of low-birth-weight infant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normal infants. It was suggested that parenting education for low-birth-weight infants would be needed to understand and impact the positive infant temperament.

* Ajou University, Division of Nursing Science

** Soonchunhy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